

# 성 호세마리아 기념 미사

성 호세마리아의 축일을 맞이  
하여 기념미사가 봉헌 되었다

2011-6-6

오푸스데이 성직자치단(서울 센터 지  
도 사제 홍지영 신부, 이하 오푸스데  
이)은 6월 28일 오후 7시 서울 청량  
리성당에서 오푸스데이 창설자인 성  
호세 마리아 에스크리바 축일 기념미  
사를 봉헌했다.

교황대사 오스발도 파딜랴 대주교의 주례로 봉헌된 기념미사에는 국내외 오푸스데이 회원과 협력자를 포함, 300여 명의 신자들이 참례했다.

오스발도 파딜랴 대주교는 강론을 통해 “성인께서는 자주 평신도적 시각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다”며 “평신도적 정신이란 이 세상을 고귀하게 만들며 각자의 권리를 찾고 책임감을 잃지 않으면서도 세속에서 물들지 않으며 허영에서 벗어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오푸스데이를 설립한 성 호세 마리아 에스크리바는 2002년 10월 6일 시성 됐다.

오푸스데이 역시 이런 성 호세 마리아의 정신에 따라 일상생활 속에서 각자 자신의 일을 성화시켜 성교회의 선교사명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조대형 기자 (michael@catimes.kr)

---

pdf |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https://opusdei.org/ko-kr/article/  
seong-hosemaria-ginyeom-misa/](https://opusdei.org/ko-kr/article/seong-hosemaria-ginyeom-misa/)  
(2026-2-22)